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4.17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 유가 급등에도 나스닥·S&P500 최고가 랠리

- 미국증시 상승: 나스닥·S&P500 이틀째 사상 최고가 경신
- 미국-이란 종전, 기대와 우려 공존..증시↑, 유가·금리·달러↑
- 주간 고용, 산업 생산, 제조업 등 경제지표는 혼조

## Summary

### 미국증시 상승: 나스닥·S&P 이틀째 '사상 최고치'

4월 16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일제히 제한적인 상승세로 거래를 마침. 이란과의 종전 회담 관련 불확실한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고 국제유가도 유의미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시장은 그로 인한 공포에서 대체로 벗어난 모습.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0.24% 상승한 48,578.72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0.26% 상승한 7,041.28에 마감. 나스닥 지수는 0.36% 상승한 24,102.704에 거래를 마쳤으며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은 0.22% 상승한 2,719.602에 마감. 전일에 이어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함.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1.27% 하락한 17.94에 마감. .

(다우 +0.24%, 나스닥 +0.36%, S&P500 +0.26%, 러셀2000 +0.22%)

### 이스라엘-레바논, 열흘간 휴전 합의

일단 실마리 하나는 풀리는 모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오후 5시부터 발효되는 열흘간의 공식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힘.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안보 관계 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긴급하게 레바논과의 휴전에 동의했다고 설명. 그는 각료들의 공식 표결 요구를 거부한 채 휴전 수용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짐. 다만 그는 휴전 기간에도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레바논 남부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에 이스라엘군이 잔류할 것이라고 말함. 한편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는 이 날 밤부터 발효되는 열흘간의 휴전 기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 주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힘. 헤즈볼라의 한 고위 인사는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스라엘 점령군이 공격을 중단하고 휴전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우리는 휴전 협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힘. 다만 휴전은 레바논 전체 영토에 적용돼야 하며 이스라엘군의 이동 제한과 함께 레바논 영토에서의 철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지난 7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한 뒤에도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격퇴하겠다며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이어왔고 이란은 이를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해왔음.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종료되는 21일을 앞두고 이번 휴전 합의가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으나 이스라엘 내부에서 내각이 승인하지 않은 휴전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헤즈볼라 역시 실질적인 철군 없는 휴전에 대한 저항을 시사하고 있어 실제 휴전 협정이 양측 모두에서 준수되는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 트럼프 "이르면 주말 이란과 회담 재개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주말 2차 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혀. 다만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포괄적 평화안 대신 갈등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임시 양해각서 체결 추진 정도의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블룸버그는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일부 걸프 지역 국가와 유럽 주요국은 미국과 이란간 평화 협정이 체결되는 데 약 6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잇으며 이에 따라 휴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보도.

### 호르무즈 해협 긴장은 여전..브렌트유 100달러 근접

한편 원유 수급 차질의 근본 원인인 양측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는 여전한 상황. 현지시각 16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단 두 척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이 이란 항구를 막은지 4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지금까지 미군이 회항시킨 선박은 14척이라는 미군 중부사령부의 발표도 있었음.

댄 케인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 국적 선발 또는 이란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어떠한 선박도 적극적으로 추적할 것"이라며 이란의 원유를 싣는 그림자 선박도 이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힘. 앞서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 사본부의 알리 압돌라히 소장도 전날 성명을 통해 "이란의 강력한 군대는 페르시아만, 오만해, 그리고 홍해를 통과하는 그 어떤 수출입 활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ING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하루 약 1,300만 배럴의 석유 흐름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가 주요 인사들의 '입'을 통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실질적인 상황 개선의 실마리는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유가는 큰 폭 상승. 특히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전장 대비 4.7% 상승한 배럴당 99.39달러로 마감해 100달러에 근접함.

### IEA "전쟁 끝나도 에너지 인프라 복구에 상당 시간 소요될 것"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공급 차질이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이란 전쟁 여파로 유럽의 항공유 재고가 약 6주 분량에 불과해 항공평 취소 등 실물 경제 충격이 가시화할 수 있다고 경고. 비롤 사무총장은 "핵심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이 완전히 재개되지 않을 경우 조만간 항공유 부족으로 일부 항공편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며 시장 압박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힘. 실제 항공 업계에서는 감편 조치가 본격화되는 모습으로 네덜란드 항공사 KLM은 5월 암스테르담을 오가는 항공편 160편을 취소했고, 독일 루프트한자도 자회

사 항공기 일부를 운항에서 제외하는 등 공급 축소에 나섬.

비롤 사무총장은 나아가 이번 에너지 위기가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구조적인 공급 훼손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해협이 재개되면 곧바로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 유전과 정유시설, 파이프라인 등 핵심 인프라가 광범위하게 손상된 만큼 복구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석유/가스 생산이 정상화되기까지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진단.

### 주간 고용, 제조업, 산업생산 등 지표는 혼조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혼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 계절 조정 기준 20만 7천건으로 한 주 전에 비해 11,000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시장 예상치 21만 5천건을 하회. 이는 전쟁에도 해고가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로 해석됨. 다만 2주 이상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의 수는 전주 대비 증가.

필라델피아 연은에 따르면 4월 이 지역의 제조업 활동 지수는 전달 대비 8.6포인트 급등한 26.7로 집계됨.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작년 1월 이후 최고.

연준은 지난달 미국의 제조업 생산이 전달 대비 0.1% 감소했다고 밝혀 0.1% 증가했을 것이란 시장 예상을 하회.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이란 전재으이 여파로 미국 경제에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의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

## 특징종목

### TSMC 실적은 좋았지만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3.13%)가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AI 메가 트렌드에 힘입어 1분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사상 최대 순이익을 달성. TSMC는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8.3% 늘어난 5,725억 대만달러에 달했다고 밝힘.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를 웃돈 것으로 8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순이익 성장률을 기록함. 이와 함께 올해 설비투자 규모가 기존 가이던스 상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회사 CEO는 이에 대해 설비투자가 늘어나면 항상 다음 해의 더 높은 성장 기회와 연관돼 왔다고 설명. 웨드부시와 니드햄 등은 TSMC 실적 발표 이후 목표가와 투자의견 등을 상향하기도. 다만 전쟁으로 인한 전력 공급 차질 등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으며 높은 분기 성장률의 지속성, 또 대규모 설비투자에 대한 우려 등이 맞물려 실적 발표 전날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주가는 주가는 약세 마감.

다만 AMD(+7.80%), 인텔(+5.48%) 등은 차별적 강세. 번스타인이 두 회사의 목표주가를 상향했는데, 번스타인은 "서버 CPU 시장의 강세로 AMD에 대한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235달러에서 265달러로 상향함. 인텔의 목표주가도 주당 36달러에서 60

달러로 상향. 다만 번스타인이 이번에 상향한 목표주가는 양사의 이 날 종가보다 낮음. 한편 AMD는 최근 12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며 인텔도 이 기간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연일 상승.

온 세미컨덕터(+10.35%)도 뱅크오브아메리카가 목표주가를 70달러에서 85달러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하는 등 긍정적 의견 속에 상승.

### TSMC 투자 확대에도 반도체 장비주 약세

TSMC가 올해 설비투자 지출이 가이던스 상단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컨퍼런스 콜에서 회사 CEO는 AI 애플리케이션에서 수요가 매우 견고해 가능한 한 빠르게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지만 장비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는 발언과 함께 장비 공급사 주가는 이 날 약세. 전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테라팹 건설을 위해 부족한 장비의 우선 공급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음. 전반적으로 공급에 병목이 존재한다는 시각 속에 TSMC에 EUV 노광 장비를 공급하는 ASML(-4.79%), 식각, 증착, 세정과 계측 및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1.11%), 식각 및 증착 공정용 장비를 공급하는 램 리서치(-1.58%), 웨이퍼 생산의 품질과 효율을 관리하는 공정 제어 및 수율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KLA(-0.76%) 등이 동반 약세.

### 마이크로소프트 "페어웨더 데이터센터 조기 가동"

빅테크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2.20%)의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짐. 사티아 나델라 CEO가 본인의 X 계정을 통해 위스콘신주 페어웨더 데이터센터의 조기 가동 소식을 알림.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데이터센터로서, 수십만개의 GB200을 하나의 통합된 클러스터로 집약하는 페어웨더 데이터센터가 예정보다 일찍 가동된다"고 밝힘.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최근 5거래일간 12% 이상 상승해 2020년 이후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시현 중.

### 찰스 슈왑 "암호화폐 현물 거래 서비스 출시 예정"

증권 중개 및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 찰스 슈왑(-7.63%)은 1분기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매출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하락. 찰스 슈왑은 한편 향후 몇 주 내에 리테일 고객을 대상으로 현물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첫 단계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이 그 대상에 포함되며 이 신규 서비스를 기반으로 로빈후마케츠(-0.54%), 코인베이스 글로벌(+2.00%) 등과 직접 경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금융 업종 내에서는 지역 은행 US뱅코프(-1.58%)의 실적 발표도 있었음. 은행은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순이자수익과 마진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힌 가운데 하락.

### 힘 붙는 리튬 가격 반등세..관련주 급등

글로벌 리튬 가격이 급반등한 영향으로 리튬 관련주도 강세. 4월 중순 기준 중국의 탄산 리

튬 가격은 연초 대비 약 40% 급등. 이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충격으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한데다 전력 인프라 투자가 기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 내 주요 광산 폐쇄로 공급은 더욱 제한된데 따른 결과. 알버말(+16.31%), 시그마 리튬 코퍼레이션(+13.61%), 리튬 아르헨티나(+11.37%), 아틀라스 리튬(+8.79%), 리튬 아메리카스(+6.80%).

### 이외 개별 특징주

진단/검사 기기 등을 생산하는 애보트 래브러토리스(-6.00%)는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한 가운데 하락. 이그젝트 사이언스 인수를 반영해 연간 조정 주당 순이익 전망도 하향. 역시 시장 전망에 못 미치는 수치로 낙폭 확대.

반도체 소자 테스트 솔루션 제공업체인 에흐르 테스트 시스템스(+10.42%)주가가 급등. 주요 하이퍼스케일 AI 고객사 중 한 곳으로부터 4,100만 달러 규모의 생산 주문을 받았다고 밝힘. 이에 루멘텀 홀딩스(+8.16%), 코히어런트(+6.42%) 등 AI 관련 광학 기업 주가 동반 상승.

펩시코(+2.28%)는 예상 상회하는 실적과 함께 상승했으며 보험사 트래블러스(-0.16%)는 예상을 웃도는 실적에도 이미 실적 기대를 주가가 상당 부분 선반영했다는 평가 속에 약세권에 마감.

페인트 등을 제조하는 PPG 인더스트리스(+4.12%)는 자사 제품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최대 20%의 가격 인상을 발표한 후 상승. 회사 측은 석유화학, 에너지 및 운송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원자재 및 포장재 비용이 상승한 것으로 반영해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혀.

우주 기술 기업 보이저 테크놀로지스(+8.79%)는 NASA가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향하는 7번째 민간 우주비행사 임무에 회사를 선정했다는 소식에 상승.

알코아(+0.04%)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을 하회했다고 밝히며 시간외 거래에서 3%대 하락.

넷플릭스(+0.07%)는 전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지만 이익단에서 시장 기대를 밑돌았고 연간 실적 가이던스는 유지했지만 2분기 매출과 이익 전망이 시장 기대를 하회한 가운데 시간외 거래에서 급락. 설립자 헤이스팅스가 6월 은퇴한다는 발표도 있었음.

##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 미 국채 금리 상승

미 국채 금리는 모든 만기물에서 상승(가격 하락). 보합세로 뉴욕 거래를 시작했으나 오전장 소폭 상승한 뒤 횡보하는 흐름.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1.5bp 상승한 3.778%를 기록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3.0bp 상승한 4.309%를 기록.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국채 금리는 4.929%로 3.9bp 상승. 전일 저항선이었던 10년물 4.3%, 30년물 4.9%를 이 날은 모두 넘김.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이는 전 거래일 51.6bp에서 53.1bp로 확대됨.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올해 12월 말까지 기준금리가 인하될 확률을 26% 내외로 반영. 전날과 비슷한 수준.

### 달러 가치 9거래일만에 반등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가치는 9거래일만에 반등.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대한 의구심,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봉쇄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이 달러 강세로 이어짐.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98.206으로 0.149% 상승.

유로-달러 환율은 0.173% 하락했고 파운드-달러 환율도 전장 대미 0.302% 하락. 유럽연합 통계 당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3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 확정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상승해 예비치 2.5%와 전월치 1.9%를 모두 상회.

달러-원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전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 종가 1,474.60원 대비 4.60원 상승한 1,479.20원에 거래를 마침.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를 감안하면 1,479.00원 기록.

### 국제유가 지난 2일 이후 최대폭 상승

상품 시장에서 국제유가는 일제히 상승. 미구과 이란의 종전 합의 선결 조건인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은 성사됐지만 로이터는 이 날 미국과 이란이 포괄적 평화합의보다는 충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 양해각서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핵 문제는 여전히 이들 사이의 핵심 장애물이라고 진단. 블룸버그 역시 유럽과 걸프 지역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까지 6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이란과의 회담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결렬될 경우 전투는 재개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실질적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도 여전히 진행 중임이 부각된 가운데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유지함.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3.72% 상승한 배럴당 94.69달러에 마감했고 브렌트유 가격은 4.7%를 상승해 배럴당 99달러를 상회함. 지난 2일 11%대 급등을 기록한 이후 최대 상승폭.

금값과 은값은 달러와 금리 강세 등을 반영해 1% 내외 하락.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